

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대한의사협회
(경유)

제목 의료법에 따른 사망진단서 작성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

1. 대한의사협회 제711-05236(2021.7.22.)호와 관련됩니다.
2. 위 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.

가. 사안 개요

- 일부 법원에서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 중 '사망장소'란에 구체적인 주소가 미기재된 경우(또는 행정동까지 기재되지 않은 경우) 사망신고를 반려하고 있음
- 하지만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환자의 사망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(병원 도착 전 사망, 장소 불분명 등) '장소 불명' 등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음

나. 질의내용

- 1) 법원이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의 일부 기재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지, 법원의 요청으로 사망진단서를 보완한 것이 의료법에 위배되는지
- 2) 환자의 사망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(병원 도착 전 사망, 장소 불분명 등) 이송자 등(유족, 구급대원, 경찰 등)의 진술만을 근거로 별도의 진술서 첨부 없이 사망장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

다. 답변내용

- 1) 사망진단서는 그 내용 및 효력의 중대성·심각성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한 판단 하에 환자의 상태에 대한 엄격한 실체적 진실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작성·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다만, 진단서 등을 작성·발급한 의사가 작성할 당시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·발급한 진단서 등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수정 발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- 또한 의료법상 법원의 요청에 대해 진단서를 수정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,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망(발견)장소 등에 관한 정보를 다시 파악하여 보완하였다고 해서 이 역시,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.

2) 사망진단서 상 사망장소는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, 다만 현실적으로 이송 도중 사망한 환자 또는 사망 후 발견되어 이송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 내에 근무하는 의사로서는 사망장소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바, 사망장소란에 '○○시 ○○동(119 구급대원 진술에 의함)' '○○군 ○○읍(목격자 ○○○의 진술에 따른 장소)' 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주무관	이해리	서기관	박재우	보건의료정책과	전결 2021. 8. 3.
협조자				장	김국일
시행	보건의료정책과-3884			접수	
우 30113	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			/ http://www.mohw.go.kr	
전화번호	044-202-2406	팩스번호	044-202-3924	/ heal@korea.kr	/ 비공개(5)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